

肝鬱氣滯로 변증시치한 대상포진 후 신경통 환자 치험 2례

최철홍 · 박선영 · 고경모* · 황순이** · 지선영** · 정대규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신경정신과학교실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 교실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교실

Clinical Report of 2 Postherpetic Neuralgia Cases Diagnosed and Treated as Ganwoolqiche

*Cheol-Hong Choi · Sun-Young Park · Kyung-Mo Ko**

*Sun-Yi Hwang** · Seon-Young Jee** · Dae-Kyoo Chung*

Objective : This study report the effect of traditional medical treatment on postherpetic neuralgia(PHN) 2 cases.

Methods : We observed 2 PHN cases diagnosed Ganwoolqiche and prescribed herbal medication (Soyosan-Gagambang & Punsimgieum-Gamibang) for each case.

Results : Both cases showed efficient clinical results, especially for the pains.

Conclusion: In this study, operated traditional medical treatment on PHN cases and could find good progress after treatment.

Key word : Soyosan-Gagambang, Punsimgieum-Gamibang, Jeonyohwadan, Ganwoolqiche, Postherpetic Neuralgia(PHN)

1. 서 론

대상포진(Herpes zoster)은 수두 감염 후에 배근 신경절에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감각 신경절이 지배하는 피부에 일측성으로 수포

성 발진과 동통을 나타내는 질환으로 주로 성인에서 발생한다¹⁾. 대상포진은 일반적으로 연령층이 높을수록 발생빈도가 높고 증상도 심하며 면역기능이 저하된 경우에 잘 발생한다²⁾.

대상포진은 한의학에서의 纏腰火丹과 유사하며, 돌연히 수포가 일측의 신경분포를 따라서 띠모양으로 무리지어 발생하며 심한 刺痛을 동반하는 피부병으로 봄, 여름에 장년층에게서 다발한다¹⁾. 발

교신저자 : 정대규,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신경정신과교실
(Tel:053-770-2081, E-mail: chung@dhu.ac.kr)

• 접수 2008/11/07 • 수정 2008/11/25 • 채택 2008/12/09

생부위와 형상에 따라 “蜘蛛瘡”, “蛇串瘡”, “火帶瘡”, “纏腰丹”, “蛇纏瘡” 등의 다양한 병명을 사용하였다³⁾.

서양의학적 치료는 항바이러스제, 항우울제, 항경련제 등 약물요법과 교감신경차단술, 국소도포제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확실한 치료법은 없는 상태이다⁴⁾.

현재 대상포진에 대해 이 등⁴⁾, 김 등⁵⁾, 유 등⁶⁾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대해 연구하였고, 한 등³⁾, 황 등⁷⁾이 문헌적 고찰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肝鬱氣滯로 변증하여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치료한 임상논문은 아직 없다. 이에 저자는 대구한의대 부속 대구한방병원에 내원한 肝鬱氣滯로 변증한 대상포진 후 신경통 환자 2명을 치료하여 양호한 경과를 관찰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증례

〈증례 1〉

1. 환자명(성별/나이)

어00(F/56)

2. 주소증

右側 脇肋部 疼痛

3. 발병일

2007년 6월 30일경(본인 및 보호자 진술)

4. 가족력

특이사항 없음

5. 과거력

원형탈모증 : 2002년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 진단 받고 치료 후 호전

6. 현병력

상기 환자는 비만 체격에 평소 성격이 급하고 예민한 편이다. 2007년 4월경부터 직장 및 집안일로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피로에 노출된 상태를 유지하던 중 2007년 6월 30일경 갑자기 右側 脇肋部 疼痛 상태 발하여 2007년 7월 2일 00피부과 방문하여 대상포진 의증으로 1개월간 치료받던 중 상태 여전하여, 2007년 8월 3일 00대학 부속병원에서 대상포진 진단하에 지속적인 치료받던 중 상태 미호전되어 환자 및 보호자 적극적 한방 치료 원하여 2007년 8월 10일경 본원 외래 경유하여 입원함.

7. 개인력 및 사회력

본 환자는 성격이 급하고 예민한 편으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해 식당 일을 하며 1남 1녀를 키웠음. 자식들 결혼 후 분가하고 10여 년 전 남편 사별 후 혼자 생활하고 있음. 타인에게 부탁하거나 도움을 받는 것을 꺼려하는 편으로 평소 쓸쓸하다는 느낌을 자주 가짐. 일상생활 중 잦은 피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아왔으며, 5년전 원형 탈모 상태 발하여 치료 후 상태 호전됨. 입원 당시도 경제적 상황으로 입원 거절하였으나 보호자의 설득으로 입원 결정함.

8. 입원시 한방소견

- 1) 消化 : 不良
- 2) 食慾 : 3回 全得
- 3) 大便 : 1回/日
- 4) 小便 : 7-8回/日
- 5) 睡眠 : 淺眠
- 6) 脈診 : 弦脈
- 7) 舌診 : 紅 厚白苔

9. 입원시 검사소견

- 1) 활력징후 : 혈압 100/70mm/Hg, 맥박 72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6.6℃
- 2) 신장 및 체중 : 155cm, 55kg
- 3) 심전도 : Within Normal Limits
- 4) Chest X-ray : Unremarkable

10. 치료

- 1) 약물 치료 : 다음의 처방을 2첩 분량으로 3회/일 분복하였다.
逍遙散加減方 《東醫寶鑑》⁸⁾
(2007.8.10-2007.8.16)
白朮, 當歸, 白芍藥, 牡丹皮, 白茯苓, 玄胡索 각 6g, 丹蔘, 梔子, 柴胡 각 4g, 甘草 3g, 牡蠣粉, 乾薑, 薄荷 각 2g.
- 2) 침구 치료
 - ① 침 치료: 1회용 Stainless steel 멸균 호침 (행림서원, 0.20×30mm)을 사용하여 1회/일 혈위에 따라 5mm-25mm 깊이로 자침하여 20분간 유침하였다. 치료혈은 《舍岩鍼灸正傳》⁹⁾에 나오는 肝正格을 迎隨補瀉法을 사용하여 시행하였다.
 - ② 구 치료: 中腕, 關元에 間接灸(神氣灸; 햇님구관사)를 2壯/日하고, 內關, 足三里에 間接灸(回春灸; 봉래구관사)를 3壯/日 시행하였다¹⁾.

11. 치료효과의 판정

신경통은 VAS(Visual Analogue Scale) 로 치료효과를 평가하였다. 각 증상의 최초 내원 시 자각정도를 10으로, No symptom을 0으로 하여 0에서 10까지 구분하여 각 증상의 자각정도를 표현하게 하였다¹⁰⁾.

12. 임상 경과 및 치료

Table 1. Clinical Symptoms Progress & Treatment

날짜	부위	통증	설진	처방
07.8.10	右側 8肋骨下部-背部	피부 스치면 刺痛(+), 灼熱感(+) VAS 10	紅厚白苔	逍遙散加減方
07.8.12	右側 8肋骨下部-背部	刺痛(+), 灼熱感(+) VAS 8-9	紅白苔	
07.8.14	右側 8肋骨下部	背部 痛症 소실, 肋骨下部 痛症 減少하 刺痛(+), 灼熱感(+) VAS 5	淡紅白苔	
07.8.16	右側 8肋骨下部	刺痛(+), 灼熱感(+) VAS 1-2	淡紅薄白苔	

<증례2>

1. 환자명(성별/나이)

문00(M/55)

2. 주소증

右側 脇肋部 疼痛

3. 발병일

2008년 3월경(본인 및 보호자 진술)

4. 가족력

특이사항 없음

5. 과거력

당뇨병 : 1997년 00내과 진단 후 양약 복용 중

6. 현병력

상기 환자는 마른 체격에 평소 성격이 급하고 예민한 편이다. 2007년 3월경부터 직장 일로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피로에 노출된 상태를 유지하던 중 2007년 3월경 갑자기 右側 脇肋部 疼痛 상태 발하여 2007년 3월경 LMC 방문하여 대상포진으로 진단하여 지속적인 치료 받던 중 상태 미호전되어 환자 및 보호자 적극적 한방 치료 원하여 2007년 5월 17일경 본원 외래치료함.

7. 개인력 및 사회력

본 환자는 성격이 급하고 예민한 편이다.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해 야간에 경비일을 하는 사람으로, 2007년 3월경 금전적인 문제로 타인과 잦은 마찰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조금만 성격으로 화를 잘 내는 편이다.

8. 입원시 한방소견

- 1) 消化: 不良
- 2) 食慾: 3回 全得
- 3) 大便: 1回/日
- 4) 小便: 7-8回/日
- 5) 睡眠: 淺眠
- 6) 脈診: 弦 弱
- 7) 舌診: 紅 白苔

9. 치료

- 1) 약물 치료: 다음의 처방을 2첩 분량으로 3회/일 분복하였다.
分心氣飲加味方 《石室秘錄》¹¹⁾
(2007년5월17일-5월27일)
龍眼肉 12g 白茯苓 香附子 各 8g 山查 7g
黃耆, 白荳蔻, 丹蔘 各 6g 紫蘇葉 5g 半夏,
藿香, 枳殼, 甘草, 生薑 各 3g 麥門冬, 木香,

大棗, 益智仁, 白茯苓, 桔梗, 燈心, 陳皮, 蒼朮, 青皮, 玄蔘 各 2g.

2) 침구 치료

- ① 침 치료: 1회용 Stainless steel 멸균 호침 (행림서원, 0.20×30mm)을 사용하여 1회/일 혈위에 따라 5mm-25mm 깊이로 자침하여 20분간 유침하였다. 치료혈은 《舍岩鍼灸正傳》⁹⁾에 나오는 肝正格을 迎隨補瀉法을 사용하여 시행하였다.
- ② 구 치료: 中腕, 關元에 間接灸(神氣灸; 햇님구관사)를 2壯/日 시행하였다¹⁾.

10. 치료효과의 판정

- 1) 복부동통은 VAS(Visual Analogue Scale)로 치료효과를 평가하였다. 각 증상의 최초 내원 시 자각정도를 10으로, No symptom을 0으로 하여 0에서 10까지 구분하여 각 증상의 자각정도를 표현하게 하였다¹⁰⁾.

11. 임상 경과 및 치료

Table 2. Clinical Symptoms Progress & Treatment

날짜	부위	통증	설진	처방
07.5.17	右側 6肋骨下部-背部	접촉시 刺痛(+), 灼熱感(+) VAS 10	紅 白苔	分心氣 飲加 味方
07.5.20	右側 6肋骨下部-背部	刺痛(+), 灼熱感(+) VAS 6-7	紅 白苔	
07.5.24	右側 6肋骨下部	背部 痛症 소실. 6肋骨下部 痛症 減少하나 刺痛(+), 灼熱感(-) VAS 3	淡紅 薄白苔	
07.5.27	右側 6肋骨下部	접촉시 刺痛(+), 灼熱感(-) VAS 2	淡紅 薄白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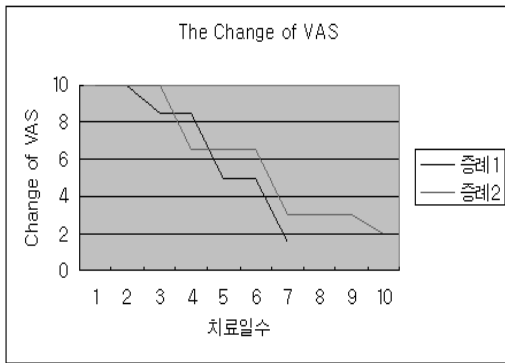


Fig. 1. The Change of VAS

III. 고찰 및 결론

纏腰火丹은 돌연히 皮疹 및 水疱가 무리지어 一側의 특징적인 대상을 따라서 띠 모양으로 배열되고 심한 刺痛을 동반하는 피부질환이다. 발현되는 양상과 발생부위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다. 마치 뱀이 기어가는 모양이라 하여 蛇串瘡 또는 腰脇部에 띠 모양으로 감고 있다 하여 纏腰火丹 또는 사지에서 나타난다 하여 蜘蛛瘡 혹은 飛蛇丹이라 한다. 주로 2-3주 지나면 회복이 되나 후유증으로 疼痛, 麻木 및 痺感 등이 나타난다¹⁾.

한의학에서 纏腰火丹의 원인은 《證治準繩》¹²⁾에서 “火帶瘡 亦名纏腰火丹 由心腎不交 肝火內熾 流入膀胱 纏於帶脈 故如束帶”라고 하여 肝火에 의한 것으로 보았고, 《外科正宗》¹³⁾에서는 “火丹者 心火妄動 三焦風熱乘之”라고 하여 心肝二經의 火로 보았다. 한방적 병인은 肝鬱氣滯, 脾經濕熱, 氣滯血瘀 등이 있으며³⁾, 肝鬱氣滯에는 疏肝解鬱하고, 脾經濕熱에는 健脾利濕清熱하며, 氣滯血瘀에는 利氣活血의 치법을 활용한다^{1,3)}.

증상은 陳士鐸이 《洞天奧旨》¹⁴⁾에서 “蜘蛛瘡 生於皮膚之上 如水窠鬚 其色淡紅 微痛 三三兩兩 或群攢取 宛似蜘蛛”라고 하였고, 王肯堂은 《證治準繩》¹²⁾에서는 “纏腰火丹 或間遶腰生瘡 累累如珠

何如 曰是名火帶瘡”이라고 하였다.

纏腰火丹은 서양의학에서의 대상포진(Herpes zoster)과 유사하며, Varicella-zoster virus 등의 감염이 원인으로서 감염이 치유된 후 바이러스가 후근 신경절에 잠복하였다가 면역능력이 저하되면 원심성으로 지각신경에 도달하여 피부에 분절성의 신경염으로 피부발진을 일으키고 통증을 동반하는 질환이다. 대체로 국소적, 편측으로 발병하며 감각신경에 침범한다. 척수 분절에서는 감염부위에 따라 대상포진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장 흔하게 침범하는 곳은 흉추신경이며 경추 및 요천추부에서는 대상포진이 드물게 발생한다¹⁵⁻⁶⁾. 대상포진은 일반적으로 연령층이 높을수록 발생빈도가 높고 증상도 심하며 면역기능이 저하된 경우에 잘 발생한다²⁾. 또한 소아 및 청장년의 동통은 輕하거나 不痛한데 반해 노약자의 경우는 통증이 중하고 오랫동안 지속된다.

대상포진의 합병증 중 하나인 대상포진 후 신경통(PHN)은 가장 흔한 난치성 만성통증증후군의 하나로 피부발진 이후 30일 이상 혹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통증으로 정의된다. 대상포진 환자의 10-70%에서 통증이 남아 PHN으로 이환되는데 나이가 들거나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 더 자주 발생하며 지속적인 통증, 이질통, 감각이상을 주로 호소하며 심한 경우 우울증, 불면증 및 식욕부진 때문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⁴⁾.

서양의학적 치료는 항바이러스제 등 약물요법과 교감신경차단술, 국소도포제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확실한 치료법은 없는 상태이다⁴⁾.

한의학에서 七情所傷의 병리를 보면 人身은 神靈이 주재하므로 悲哀가 太甚하면 肝氣가 不舒하고 榮衛가 不散하고 忿怒가 太過하면 肝氣가 橫逆하여 혈액이 壅積하고 胸悶, 嘔逆하며, 思慮가 太過하면 志專神聚하여 氣凝不散하므로 소화가 안되고, 喜樂이 무궁하면 神志가 불안하므로 氣緩하고, 恐懼가不已하면 중기가 下陷하여 肚腹이 脹滿하는 등으

로 신체가 권태롭다고 하였고, 方約之에 의하면 부인은 매사에 憂思, 忿怒, 鬱氣가 되는 일이 많으니, 憂思가 過하면 氣가 結하고, 氣가 結하면 血도 結한다고 하였다. 또한 肝氣는 疏通, 舒暢, 條達하는 생리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情志활동의 변화와 관련이 깊다.

최근의 연구에서 스트레스는 인체의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¹⁷⁾, 면역력 저하는 Varicella-zoster virus의 활동을 재활성화시켜 대상포진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⁵⁾.

증례 1의 환자는 성격이 급하고 예민한 사람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편으로 10여 년간 혼자 생활하며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편이었고, 일상생활 중 잦은 피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피부가 희고 습담이 많은 비만한 체형이며 내원 시 舌紅하고 苔가 厚白苔이고 脈弦하여 肝鬱氣滯로 인한 纏腰火丹으로 변증하여 肝鬱을 치료하는 逍遙散加減方을 사용하였다.

逍遙散은 疎肝解鬱, 健脾養血하여 情志의 不暢으로 肝의 調達機能이 소실되고 營血이 暗耗하게 되면 肝氣는 鬱結하고 肝血은 부족하게 되고, 肝에기가 울체하면 橫逆克脾하고 또 脾失健運하게 되어 氣血의 원천이 부족해지므로 肝을 유양하지 못하는 것을 치료하는 방제이다. 逍遙散加減方은 逍遙散에 牡丹皮, 玄胡索, 丹蔘, 梔子, 牡蠣粉을 더하고 麥門冬을 제거한 처방으로 當歸, 白朮藥은 養血柔肝하여 和肝하고, 白朮, 白茯苓은 益氣健脾하여 脾健되어 肝의 영향을 받지 않고, 脾가 氣血을 化生하게 되어 養肝하게 된다. 柴胡는 疎肝解鬱하여 肝性을 순조롭게하고, 玄胡索은 血分과 氣分으로 들어가 血中氣滯와 氣中血滯를 行하게 하여 活血利氣止痛하게 한다. 牡丹皮, 丹蔘, 梔子は 心肝 二經의 血分에 들어가 活血하고 涼血시키는 효능이 있고, 牡蠣粉은 平肝潛陽하여 肝虛陽亢을 방지한다. 薄荷는 辛散한 性을 취하여 柴胡를 도와 疎肝하고, 乾薑의 辛溫한 性은 當歸와 함께 氣血을 緩和하여

當歸의 養血行氣의 효능을 강화시키고, 甘草는 諸藥을 調和하고 茯苓, 白朮을 도와 脾氣를 補하며, 동시에 白朮藥과 함께 肝急을 緩하게 하여 疼痛을 멈추게 한다. 본 방제는 肝鬱血虛하여 脾土에 영향을 미쳐 脇痛乳脹하고 頭痛目眩하는 등의 증상을 보일 때, “木鬱達之”하여 肝脾의 調和를 이루되 治肝하는 효능이 있다¹⁸⁾.

증례 1의 환자는 3일간의 逍遙散加減方 투여 후, 舌紅 厚白苔가 舌紅 白苔로 바뀌었고, 右側 8肋骨下部에서 背部에 이르기까지 右側 半身 피부에 스치면 호소하던 刺痛과 灼熱感이 VAS 10에서 VAS 8-9정도로 미호전 되었다. 逍遙散加減方 투여 5일 후 舌紅 白苔가 舌淡紅 白苔가 되었고, 右側 8肋骨下部에서 背部에 이르던 통증이 右側 8肋骨下部에 국한되었으며 刺痛과 灼熱感도 VAS 5정도로 호전되었다. 逍遙散加減方 투여 7일 후 舌淡紅 白苔가 舌淡紅 薄白苔가 되었고, 右側 8肋骨下部에 국한된 刺痛과 灼熱感도 VAS 1-2정도로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증례 2의 환자는 성격이 급하고 예민한 사람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내원 시 胸悶이 있고, 舌이 紅하고 苔가 白苔이고 脈이 弦, 弱하여 肝鬱氣滯로 인한 纏腰火丹으로 변증하여 氣滯를 치료하는 分心氣飲加味方을 사용하였다.

分心氣飲은 心胸間의 鬱滯된 기를 分하고 開하는 처방이다¹¹⁾. 分心氣飲加味方은 龍眼肉, 白茯苓, 丹蔘으로 養血安神하여 마음을 편안히 하고, 山查, 白豆蔻로 消食開胃하고, 黃耆, 益智仁은 益氣固氣하고, 陳皮, 青皮, 香附子, 木香으로 鬱滯된 氣를 運하며, 茯苓, 蒼朮, 燈心草는 滯를 下하고 三焦의 水道를 通利하며, 紫蘇葉, 藿香은 散解하며, 半夏, 枳殼, 桔梗은 痰을 제거하고 胸中의 鬱을 풀어주며, 麥門冬, 玄蔘은 滋陰清熱하여 胸中煩悶을 없애고, 甘草, 大棗, 生薑은 諸藥을 調和하며 解毒하므로 理氣, 行血, 利水, 祛痰의 작용을 통해 男子와

婦人의 일체의 氣不和에 쓰인다. 본 處方은 憂愁, 思慮, 怒氣로 인하여 神이 손상되었을 때 활용 가능하며, 또한 停滯된 氣를 疏通시키고 陰陽을 昇降시키며 三焦를 고르게 調和시키고 脾臟을 和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 정신과 질환의 치료에 활용되고 있다¹⁹⁾.

증례 2의 환자는 分心氣飲加味方 투여 후, 右側 6肋骨下部에서 背部에 이르기까지 右側 半身 피부에 접촉시 호소하던 刺痛과 灼熱感이 VAS 10에서 VAS 6-7정도로 호전되었고, 전중혈 부위에 비색감(+), 압통(+)에서 비색감(+), 압통(±)으로 전체적 胸悶상태가 감소되었다. 分心氣飲加味方 투여 7일 후 舌紅 白苔가 舌淡紅 薄白苔가 되었고, 右側 6肋骨下部에서 背部에 이르던 통증이 右側 6肋骨下部에 국한되었으며 刺痛이 VAS 3정도로 호전되었고, 灼熱感은 소실되었다. 分心氣飲加味方 투여 10일 후 右側 6肋骨下部에 국한된 刺痛은 VAS 2정도로 호전되고, 전중혈 부위의 비색감(±), 압통(-)으로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본 증례의 환자들 중 증례1의 환자는 연고지 관계로 퇴원하고, 증례 2의 환자는 경제적 상황으로 조기 치료 중지하여 비록 1주일에서 10일 간의 짧은 치료기간으로 인해 증상의 종결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부위 및 통증 정도가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두 증례의 환자 모두 스트레스로 인한 肝鬱氣滯로 변증하였으나 증례 1의 경우 肝鬱에 중점을, 증례 2의 경우 氣滯에 중점을 두어 상이한 처방을 사용한 점과 증례의 수가 적어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효과적이라고 하기 힘든 것, 그리고 비록 통증의 발현이후 각각 40일, 60일 정도의 시간 경과가 있었으나 비교대상이 없어 60세 이전의 환자로서 자연경과시의 통증 변화와 차별화하기 힘들다는 점이 아쉽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경우 이미 수포가 사라졌으나 난치성 만성통증증후군으로 일상생활에 불편

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방적인 변증시치를 통해 통증 정도의 호전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또한 이와 같은 난치성 통증증후군에 대한 더욱 다양한 임상보고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전국한의과대학 피부외과학 교재편찬위원회. 한의피부외과학. 부산:도서출판선우. 2007;4:27-31.
2. 이재영, 윤녕훈, 박석돈. 대상포진 환자의 통증에 관한 임상적 고찰. 대한피부과학회지. 2006;44(11):1298-303.
3. 한영주, 이길재, 강운호. 전요화단에 대한 문헌적 고찰. 동서의학. 1993;18(4):33-46.
4. 이경진, 한상진, 김진수, 윤석환, 이영석. 피부절제술로 치료한 대상포진후 신경통. 대한통증학회지. 1999;12(2):246-9.
5. 김효진, 성현철, 김도원, 이원주, 이석중, 나건연. 대상포진 환자의 면역상태에 따른 임상양상. 대한피부과학회지. 2006;44(2):149-56.
6. 유수봉, 신상욱, 백승훈, 김철홍, 김경훈, 김해규. 대상포진후 신경통 치료 중 발생한 섬망. 대한통증학회지. 2004;17(2):255-8.
7. 황문제, 박령준, 최병문. 대상포진에 대한 동서 의학적 비교고찰. 대한기공의학회지. 2000;4(2):242-76.
8. 許浚. 東醫寶鑑. 서울:남산당. 2004:626.
9. 黃廷學. 舍巖鍼灸正傳. 대구:석림출판사. 1996:191-4.
10. 대한통증학회. 통증의학. 서울:군자출판사. 1997:27-8.
11. 陳士鐸. 石室秘錄. 서울:행림출판사. 1987:13, 48-9.
12. 王肯堂. 證治準繩. 대북:신문풍출판고분유한공

- 사. 1976:272.
13. 陣實功. 外科正宗. 북경:인민위생출판사. 1983: 252-3.
 14. 陳士鐸. 洞天奧旨. 북경:중의고적출판사. 1992: 117.
 15. 홍지희, 손동진, 안윤정, 김애라, 배정민, 김진모, 장영호. 대상포진에 동반된 급성 배노곤란. 대한통증학회지. 2004;17(1):71-4.
 16. 노석선. 원색 피부과학. 서울:아이비씨기획. 2006:241-4.
 17. 변광호. 스트레스와 면역 연구의 간호학적 접근. 스트레스가 면역기능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학술대회자료집. 2002; 2:35-40.
 18. 김상찬, 김선희, 노승현, 박선동, 변성희, 서부일 외. 방제학. 서울:영림사. 1999:157-9.
 19. 김종우, 황의완, 허용석, 김현택, 박순권, 김현주. 분심기음가미방이 수면장애와 정서성에 미치는 영향. 동의신경과학회지. 2000;11(2):53-62.